

# 류현진, 사연 많았던 콜로라도전 마침내 승리

시즌 5번째 대결서 7이닝 3실점 첫 승...시즌 13승 달성



시즌 13승 달성에 성공한 류현진(32·LA 다저스). 사연 많은 콜로라도 로키스와 5번째 대결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6피안타(2피홈런) 무사사구 8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7-4로 승리하며 류현진은 시즌 13승(5패)째를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2.41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전

체에서 이 부문 선두를 지켰다. 지난달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시즌 12승을 달성한 뒤 6경기만에 시즌 13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이번 시즌 콜로라도와 경기에서도 5번째로 첫 승을 수확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류현진은 올 시즌 콜로라도전 4경기에 선발 등판해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4.87만 기록중이었다. 유독 콜로라도전에 사연이 많았다. 시즌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6월23일 홈 경기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이 터지

지 않아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 6월29일 콜로라도 원정경기에서는 4이닝 7실점으로 와르르 무너졌다. 최고의 페이스를 이어가던 류현진에게 큰 내상을 안겨준 경기였는데 콜로라도전 첫 패배와 함께 쿠어스필드 구장에서의 약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류현진은 8월1일 다시 나선 쿠어스필드 원정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로 약세 이미지를 금세 탈피했다. 비록 타선 지원 불발로 승리투수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쿠어스필드 열세를 벗어나기 위한 집중력이 돋보였고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지난 9월5일 4번째 콜로라도와 맞대결에서는 5회도 버티지 못한 채 4/3이닝 3실점으로 난조를 보였다. 승패는 기록하지 못했다. 이때는 앞서 3연패 중이던 류현진의 슬럼프가 심해진 시기로 극강의 모습을 자랑하던 홈에서의 부진이라 그 충격이 컸다. 그리고 이날 올 시즌 5번째 콜로라도전에서 마침내 승리의 감격을 누렸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마지막 콜로라도전을 귀중한 승리로 장식하며 웃었다.

# 임성재, 무르익어 가는 PGA투어 생애 첫 우승

PGA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준우승



통한의 스리 퍼트가 임성재(21·CJ대한통운)의 발목을 잡았다. 생애 첫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타이틀 획득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역대 개인 최고 성적으로 첫 우승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임성재는 23일(한국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의 컨트리클럽 오브 잭슨(파72·7334야드)에서 막을 내린 PGA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총상금 660만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적어내며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했다. 임성재는 세바스티안 무노즈(콜롬비아)와 함께 정규 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마쳤다. 그러나 이어진 연장에서 보기에 그쳐며 파를 작

성한 무노즈에게 밀려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3월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기록했던 공동 3위를 넘어서는 임성재의 개인 최고 성적이다. 임성재는 지난 시즌 35개 대회에서 톱10에 7번 올랐고 펠레스크랭킹 상위 30명만 참가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도 유일한 신인으로 출전했다. 루키 시즌 중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은 많았으나 임성재만큼 꾸준한 활약은 드물었고, 결국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의 신인왕이라는 전리품을 얻었다. 가장 많은 대회에 출전하며 누구보다 바쁜 루키 시즌을 보냈던 임성재는 짧은 휴식 후 곧바로 2019-20시즌 일정에 돌입했다. 지

난주 시즌 개막전이었던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는 시즌 1호 홈인원의 주인공이 됐고, 최종 공동 19위로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곧바로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대회 시작 전부터 PGA투어는 임성재를 파워랭킹 4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기대에 부응한 임성재는 1·2라운드에서 10위권을 유지하다 3라운드에서 공동 5위로 치고 올라갔다. 선두와 격차가 크지 않아 첫 우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최종 라운드에서 임성재는 5번 홀(파5)까지 보기 없이 버디만 3개 잡으면서 선두권을 무섭게 추격했다. 선두 탈환도 가능해 보였지만 7번홀(파3)에서 발목을 잡혔다. 임성재는 첫 샷을 그린에 올린 뒤 퍼트를 시도해 홀컵 약 1.75m 거리에 붙었다. 버디 추가는 못하지만 파를 기록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임성재의 파 퍼트는 빗나갔고 결국 보기를 범하고 말았다. 이후 2개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던 정구라온드를 동타로 마치며 연장전에 돌입한 것 등을 감안하면 7번홀에서의 스리 퍼트 보기는 아쉬움이 컸다. 임성재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시작되는 세이프웨이 오픈에 출전해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 이 대회에서 공동 4위에 올랐던 임성재가 최근 기세를 이어가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혼자 다해...농담 아닌 실화” RYU 첫 홈런에 美매체 흥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첫 홈런에 미국 현지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 7이닝 6피안타(2피홈런) 무사사구 8탈삼진 3실점으로 시즌 13승(5패)째를 따냈다. 다저스의 7-4 승리를 이끈 호투. 6경기만에 승리를 따낸 류현진

은 0-1로 끌려가던 5회말, 콜로라도 선발 안토니오 센자벨라를 상대로 중월 동점 솔로포를 쏘아 올리며 스스로 득점 지원에 나섰다. 류현진의 동점 홈런에 이어 코디 벨런저의 그랜드슬램이 터지면서 다저스는 5-1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승리했다. 이같은 류현진의 투타 활약에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SB네이션은 ‘다저스의 7-4 승리, 류현진이 다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에는 “잠깐만,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이것은 오늘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며 “한 점 뒤진 5회말 류현진이 2013년 데뷔 때부터 다저스 팬들이 기다리던 장면을 연출했다”고 적었다. 이날 홈런은 ‘타자 류현진’의 118경기, 255타석, 210타수만에 터져나온 메이저리그 첫 홈런이다. 2009년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이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이후 10년만에 나온 한국인 투수의 메이저리그 홈런이기도 하다. 뉴스

# 이강인, 새 감독 체제에서 입지 넓히나

최장 시간 출전...셀라데스 “주문대로 잘 해줘” 호평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18·발렌시아)이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발렌시아는 22일 오후(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2019-20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5라운드 레가네스와의 홈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후반 14분 막시 고메스와 교체 투입돼 31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강인은 유럽 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를 비롯해 최근 4경기 연속 그라운드

를 밟았고, 이날 시즌 최장 시간을 소화했다. 이강인은 교체 투입 후 양쪽 측면, 중앙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넓게 움직이며 공을 받아 잘 지키며 전방의 공격수에 연결하는 역할을 소화했다. 또 오른쪽 코너킥 키퍼로 나서 세트피스 상황에 가담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크로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패스성공률은 93%에 달했다. 셀라데스 감독은 경기 후 “이강인이 주문한 대로 잘해줬다. 이강인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다. 위험 지역에서 양질의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의 말대로 셀라데스 감독은 공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 축구를 펼친다. 전임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이 전통적인 4-4-2 포메이션을 썼다면 셀라데스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현지 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스페인 ‘엘데스포르테’는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아스’는 “이강인은 강렬하고 대담하다. 때때로 따라 잡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을 잘 소유했다”고 밝혔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